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추모식 기록



임을 위한 행진곡

백기완 작사

황석영 개사

김종률 작곡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 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가나니 산 자여 따르라
앞서서 가나니 산 자여 따르라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0년 5·18민중항쟁을 추모하는 노래이자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민중가요이다. 대학생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노래가 되었다. 윤상원과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에 헌정된 노래이다. 재야운동가 백기완의 장편시를 소설가 황석영이 개사하였고, 작곡가 김종률이 작곡하여 세상에 나왔다. 1981년 황석영의 자택에서 카세트 녹음기에 녹음되어 처음으로 공개됐다. 윤상원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5·18 시민군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다가 도청에서 계엄군에 의해 살해됐다. 박기순은 1978년 말 전남대 국사교육학과 재학 중 정학을 당했고, 들불야학을 창립하여 노동운동을 펼치다가 사망했다.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추모식 식순

일시 2025. 5. 17(토) 09:30 장소 국립5·18민주묘지

제1부 추모제

09:30 ~ 12:00

-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제례
- 5·18민주유공자 유가족
- 식전행사 공연

제2부 추모식

10:30 ~ 12:00

- 개식선언
- 국민의례
- 내빈소개
- 추 모 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정무창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하성일 광주지방보훈처장
- 유가족대표 인사말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
- 추모시 낭송
-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 헌화 및 분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다시 5월 앞에 섰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긴 세월 슬픔과 아픔을 감내하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 45주년 5·18은 특별합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광주와 5·18이 세계의 것이 되었고, 지난 겨울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면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광주가 현재의 대한민국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그 힘으로 지금 우리는 내란정부를 끝내고 민주정부를 세우기 위해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다.

45년 전 5월의 광주는 고립된 채 외롭고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광주를 불러주고 찾아주고 손잡아 준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의 평화애호민들 덕분에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 고마움을 이제는 돌려드릴 때입니다. 그것은 또한 이번 45주년 5·18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5·18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손잡아 주신 분들, 광주의 아픔을 따듯이 보듬어주신 분들, 계엄의 밤에 광주를 떠올리며 거리로 나서주신 분들, 이분들이 계셨기에 80년 5월은 민주주의의 꽃으로 피었고 광주는 세계 속에 빛나는 민주주의의 상징도시가 되었습니다.

5·18은 승리한 역사입니다. 이 승리의 역사를 우리는 이번 5·18을 통해 함께 기리고 즐기며 누리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전 세계의 평화애호민들과 함께 광주정신을 더 깊이 나누고 키우면서 미래 세대에게 살아있는 역사의 교훈으로 남길 것입니다.

5·18정신이 대한민국의 보편적 가치가 되도록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일에도 온 국민의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오월의 정신과 경험을 토대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에 우리 광주가 앞장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겠습니다.

광주의 오월은 꺼지지 않은 빛으로 우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오월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5년 5월 17일

이팝나무꽃 하얗게 핀 5월,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산화하신 오월 영령님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고 긴 세월을 견뎌오신 유가족 여러분과 오월 정신을 지켜내기 위해 애써오신 유공자 여러분께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980년 5월, 광주와 전남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정신과 그 속에서 맺어진 시민들의 끈끈한 연대는 오늘날 빛의 혁명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진실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며, 지난해에는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많은 유가족 분들이 다시금 그날의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월의 외침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라남도는 유가족 여러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숭고한 오월 정신을 계승해 나가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성심껏 예우하겠습니다.

다시 만난 5월,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오월 영령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 열사들의 뜨거운 피로 이룩한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겨, 모두가 행복한 대동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삼가 오월 영령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2025년 5월 17일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김석기 광주지방법보훈청장

존경하는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5·18민주화운동 45주기를 맞아 오월 영령들을 추모하고 그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의에 의연히 항거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수호한 오월 영령들 앞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45년 전 그날의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오신 부상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엄군의 잔혹한 폭력에 맞서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1980년 오월 광주의 항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었고, 6월 항쟁과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며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으로 5·18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쁨의 순간을 맞이했지만, 두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행한 내란으로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짓밟히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내란 시도를 단호히 거부하고 5·18민주화운동을 계승한 빛의 혁명으로 광장을 환하게 밝혀 내란 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이는 한강 작가가 던진 물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장엄한 화답이었습니다. 광주 시민의 피와 눈물로 쓰인 1980년 오월의 역사가 2024년 12월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구원한 것입니다.

내란 우두머리를 퇴진시키고 5·18 45주년을 맞은 올해, 우리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지, 더불어 민주주의란 완성형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키고 발전시켜야 하는 과정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다시는 누구도 위대한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도발을 꿈꿀 수 없도록 굳건한 민주주의를 이 땅에 확립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5·18의 완전한 진실 규명이 이뤄져야 합니다. 발포 명령자 규명과 암매장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책임자를 단죄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함께, 5·18에 대한 왜곡과 편향을 단호히 차단해야 합니다. 역사 왜곡을 조장하는 단체와 인사에 대해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민주시민교육 강화와 같은 철저한 예방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화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 규범화함으로써 미래 권력의 일탈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치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오월 광주 미완의 과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오월정신을 더욱 굳건히 하고, 5·18이 지역과 국가, 세대를 넘어 더 큰 공감대를 얻는 일에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오월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2025년 5월 17일

안녕하십니까? 광주지방법보훈청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5·18민주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받들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님들의 고귀한 희생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지금까지 슬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980년 5월 광주는,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용기로 역사를 만들었으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주의의 씨앗이 되어 불의에 맞서 일어섰습니다. 무고한 생명이 쓰러졌고,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서 평범한 일상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광주에서 타올랐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우리나라 민주화의 밑거름이 되어 국가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5·18을 비롯한 많은 민주영령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광주지방법보훈청은 오늘의 추모제가 5·18민주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가슴에 되새기고, 그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5·18민주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17일

양재혁 공법단체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주시는 내외 귀빈들과 유가족 여러분.
다시 오월입니다. 푸르른 이 계절, 우리는 오늘도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그날의 희생과
항쟁을 기억하며, 이 땅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되새기기 위해 영령들 앞에 다시 섰습니다.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45주기입니다. 1980년 5월, 이 땅의 시민들은 국가폭력에 맞서 스스로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45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피와 눈물로 세운 민주주의, 지금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난 몇 년, 우리는 헌정질서와 법치, 입법과 인권이 무너지는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마치 다시금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한 듯한 이 현실은,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국민의 가슴에 또 한 번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내란범을
탄핵하여 파면시켰고, 국가는 극도의 혼란과 갈등 속에서 새로운 대선 정국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이 있어야 이 나라는 바로
서는가? 얼마나 더 많은 세월이 흘러야 5·18이 헌법 속에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5·18정신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뿌리이며, 그 숭고한 희생은
국가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18민주화운동은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하고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은 정의를 되찾는 일이자 민주주의의 역사적 방파제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억압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진실의 목소리는 결국 세계를 울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5·18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은 결국 살아남고, 기억은 반드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오월 영령들이시여. 우리는 더 이상 슬픔 속에만 머물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추모는
기억의 끝이 아니라, 내일을 여는 약속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끝내 이겨낼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되찾고, 정의를 바로 세우며, 희망찬 국가를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바람은 하나입니다. 두 번 다시 민주주의가 유린되지 않는 나라, 기억과 진실이
존중받는 나라, 그날의 함성이 헌법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
그 길을 향해, 5·18유족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17일

제1부 추모제



아아 광주씨, 우리나라의 십자가씨

김준태 시인	
아아, 광주여 무등산이여 죽음과 죽음 사이에 피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	아아, 우리들의 도시 우리들의 노래와 꿈과 사랑이 때로는 파도처럼 밀리고 때로는 무덤을 뒤집어쓸지언정 아아, 광주여 광주여 이 나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무등산을 넘어 골고다 언덕을 넘어가는 아아, 온몸에 상처뿐인 죽음뿐인 하느님의 아들이여
우리들의 아버지는 어디로 갔나 우리들의 어머니는 어디서 쓰러졌나 우리들의 아들은 어디에서 죽어 어디에 파묻혔나 우리들의 귀여운 딸은 또 어디에서 입을 벌린 채 누워있나 우리들의 혼백은 또 어디에서 찢어져 산산이 조각나 버렸나	정말 우리는 죽어버렸나 더 이상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없이 더 이상 우리들의 아이들을 사랑할 수 없이 죽어버렸나 정말 우리들은 아주 죽어버렸나 충장로에서 금남로에서 화정동에서 산수동에서 용봉동에서 지원동에서 양동에서 계림동에서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아아, 우리들의 피와 살덩이를 삼키고 불어오는 바람이여 속절없는 세월의 흐름이여
하느님도 새떼들도 떠나가버린 광주여 그러나 사람다운 사람들만이 아침저녁으로 살아남아 쓰러지고, 일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들의 피투성이 도시여 죽음으로써 죽음을 물리치고 죽음으로써 삶을 찾으려 했던 아아 통곡뿐인 남도의 불사조여 불사조여 불사조여	아아,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구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가 넋을 잃고 밥그릇조차 대하기 어렵구나 무섭구나 무서워 어찌지도 못하는구나 (여보 당신을 기다리다가 문 밖에 나가 당신을 기다리다가
해와 달이 곤두박질치고 이 시대의 모든 산맥들이 엉터리로 우뚝 솟아 있을 때 그러나 그 누구도 찢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아아, 자유의 깃발이여 살과 뼈로 응어리진 깃발이여	아아,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구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가 넋을 잃고 밥그릇조차 대하기 어렵구나 무섭구나 무서워 어찌지도 못하는구나 (여보 당신을 기다리다가 문 밖에 나가 당신을 기다리다가



나는 죽었어요... 그들은
왜 나의 목숨을 빼앗아 갔을까요
아니 당신의 전부를 빼앗아 갔을까요
셋방살이 신세였지만
얼마나 우린 행복했어요
난 당신에게 잘해주고 싶었어요
아아, 여보!
그런데 나는 아이를 뱀 몸으로
이렇게 죽은 거예요 여보!
미안해요, 여보!
나에게서 나의 목숨을 빼앗아 가고
나는 또 당신의 전부를
당신의 젊은 당신의 사랑
당신의 아들 당신의
아아, 여보! 내가 결국
당신을 죽인 것인가요?)

아아, 광주여 무등산이여
죽음과 죽음을 뚫고 나가
백의의 옷자락을 펴럭이는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
불사조여 불사조여 불사조여
이 나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다시 넘어오는

이 나라의 하느님 아들이여
예수는 한 번 죽고
한 번 부활하여
오늘까지 아니 언제까지 산다던가
그러나 우리들은 몇백 번을 죽고도
몇백 번을 부활할 우리들의 참사랑이여
우리들의 빛이여, 영광이여, 아픔이여
지금 우리들은 더욱 살아나는구나
지금 우리들은 더욱 튼튼하구나
지금 우리들은 더욱
아아, 지금 우리들은
어깨와 어깨 뺄와 뺄를 맞대고
이 나라의 무등산을 오르는구나
아아, 미치도록 푸르른 하늘을 올라
해와 달을 입맞추는구나

광주여 무등산이여
아아, 우리들의 영원한 깃발이여
꿈이여 십자가여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젊어져갈 청춘의 도시여
지금 우리들은 확실히
굳게 뭉쳐있다 확실히
굳게 손잡고 일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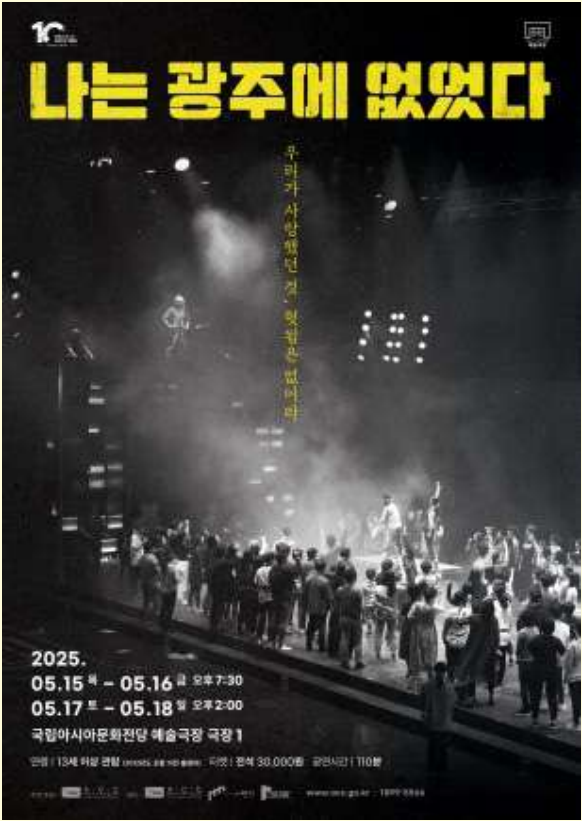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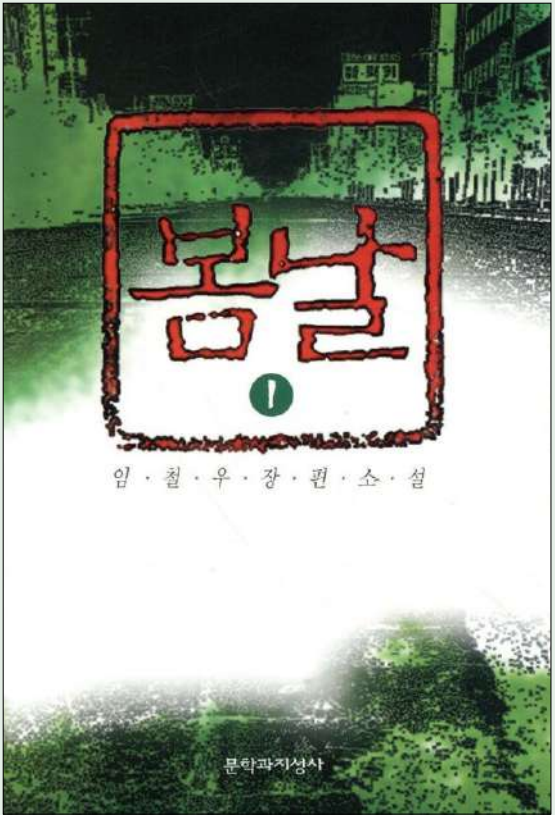


제2부 추모식









“불현듯 그날 밤 광장에서의 햇불 시위의 광경이 눈앞에 떠올랐다. 연시빛 불빛에 따스하게 젖어 흔들리던 그 이름 모를 수많은 얼굴들. 어둠이 깔린 거리를 따라 흐르던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행렬. 수천 수만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부르던 노래... 이 내 짙은 잿빛의 수면 위로, 누군가의 얼굴들이 물방울처럼 하나둘 돌아나기 시작했다. 윤상현, 무석형, 철수, 순임이, 민태, 민호... 친구들, 선배들,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 얼굴들. (중략) 저만치 맞은편 섬의 둥근 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다. 눈부시게 밝은, 늦은 봄날의 아침이었다.”

- 임철우 '봄날5' 중에서





홍성담 作



오 윤 作







술아술아 푸르른 술아

안치환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어머니의 눈물이
가슴속에 사무쳐 우는 갈라진 이 세상에
민중의 넋이 주인되는 참세상 자유위하여
시퍼렇게 콧물들어도 강물저어 가리라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 셋바람에 떨지 마라
창살아래 내가 묶인 곳 살아서 만나리라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 셋바람에 떨지 마라
창살아래 네가 묶인 곳 살아서 만나리라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
창살아래 내가 묶인 곳 살아서 만나리라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 셋바람에 떨지 마라
창살아래 네가 묶인 곳 살아서 만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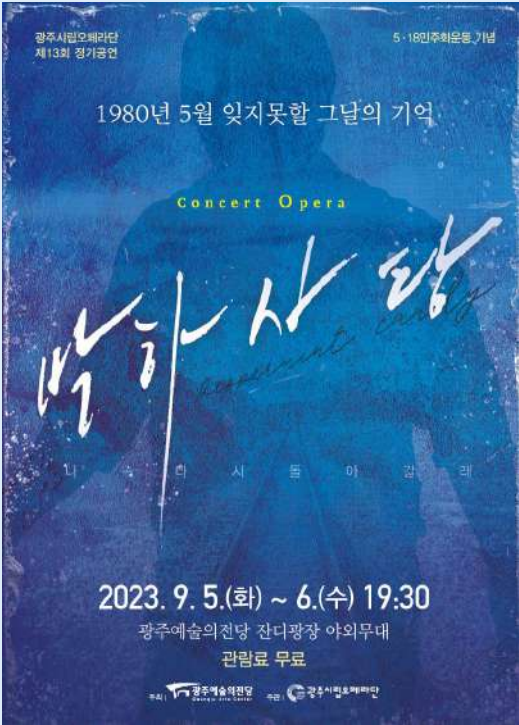




윤이상 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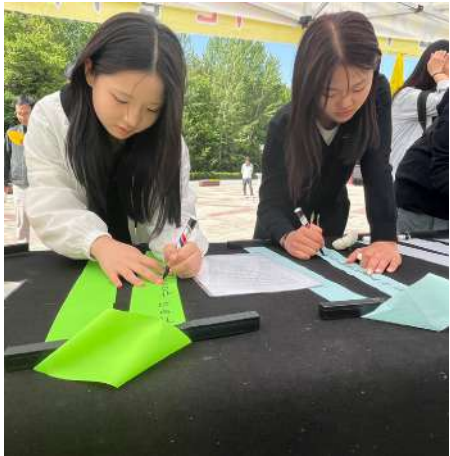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 한 강 작가
(2025.3.25 “윤석열을 파면하라”. 작가 414명 탄핵 촉구 성명 중에서)







한초페터 사진작가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추모식 기록

일시 2025. 5. 17(금) 09:30
장소 국립5·18민주묘지

발행인 양재혁
발행일 2025. 5. 31
발행처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특별위원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 조규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 원순석 5·18기념재단이사장

운영위원 상임부회장 홍순백, 부회장 문성욱, 사무총장 임옥란,
이사 심양길·임희광·황병용, 상임감사 김성찬, 감사 정호권,
서울특별시지부장 김준기, 광주광역시지부장 문준희, 전라남도지부장 양관석

제례위원 집례 양관석 전남지부장, 초헌 양재혁 회장, 아헌 정종문 광주광역시지부 국장,
종헌 윤남식 공로자회장, 대축관 문성욱 부회장, 진설 홍순백 상임부회장,
알자 이종훈·전재룡 전 이사, 봉작 문준희 광주광역시지부장 박영현 대의원,
전작 황병용·심양길 이사, 산신제 손장관 대의원, 헌화 진행 임희광 이사

추모식사회 김성찬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상임감사

행사진행 유족회 김동형, 오행수, 이계벽, 김남숙, 유하영, 김현수, 김한준, 오소연, 이미영
(광주지부) 정종문, 김정란, (전남지부) 최애경, 박선화

촬영 미디어센터봉사단5 성몽제, 송철근, 김정호, 염상섭

편집 기록팀장 김동중

사진촬영 최막례

기획/인쇄 넥스트디자인(T. 062-226-5525)



수록된 자료를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2025 5·18민주유공자유족회